

2016년 11월 24일, 구좌읍 종달리 송미영씨 댁, 송정희 조사.  
고순안(여, 1947년생, 구좌읍 하도리)

**[제보자]** 오설룡띠님아기. 이 하도리 오설룡띠님아기인 옛날 이 오 오설룡 오설룡님이 아덜 이 아기가 엇언. 공 디련 예공녀 탄식허난에 어린 때에 그디 막 물도 벅쉬 쉐도 벅쉬 거기 부제로 살앗주. 부제로 사난. 그 뜰아기 나난 구덕에 눕져 눕져그네 흔들주. 흔들곡 영영허민. ھ률날은 이 아기씨가 이제 바령밧디렌 헌 건 옛날에 밧데 응 바령밧데 가네 이젠 그 상탕물이렌 헌 건 큰 큰 물. 영 경 헤그네 그 하 그 아기가 손으로 헤여그네 저 더운 설을 빼영 저 옛날엔 씻을 땐 영 헹 그 그릇에 씨천 소금 앗안 가곡. 접시 요만헌 접시 앗안 가곡 헹그네 소금에 적정 먹 엉 오민 듯날 아칙은 종하님이 나가보면은 이 상탕물두 죽어지곡 쉐도 죽어지거든. 게난

“필아곡절허다.”

게난 상전 앞에 왕 들으난 이젠 종하님이

“나상 베레보라.”

게난 이 밤 왕 저 밤새에 당허나네. 아기씨가 눕던 아기씨가 눕던 아기씨가 이 젠 나가네 이 논두렁에 강 그 더운 설이렌 헌 건 녹미녹설 헹 먹언. 방에 들어완 구덕에 눕지난. ‘상전 앞이 머렌 골앗당 지네가 목이 걸령 죽을 거난 아니웰로구나.’ ھ률날은

“상전님아, 오늘랑 나 상전이 강 베레봅서.”

게난 아기가 구덕에 눕지던 아기가 나오란 바령밧디 들어가네 그 더운 설을 빼여내여네 물에 씨천 소금에 적션 먹으난 ‘이 아긴 영 헹 낫단 큰일 날로구나.’ 손도 끊어불곡 발도 끊어불언 하르방이. 경 헹 저 서춘 가네. 죽으렌 헨 내부난 에 어느 신춘인가 조춘 사이에 거 제주시엔가 강 허난 호첩 남의 첨으로 강 에 첨으로 강 살당 죽으난 친정에 돌아오라. 친정에 돌아오난 난데엇이 그후루 이

젠, 그 물두 죽어가곡 쉐도 갑작시리 갑작시리 죽어가난 필아곡절해 경 행 문점 허난.

“아기씨가 예, 죽으렌 행 내분 아기가 죽으난, 갈 때 올 때 엇언, 친정에 들어 와수다.”

“경 허믄 어떻 허믄 텁네겠?”

허난 그 궂힐 때랑 놀간 행 산신 행 거느령 이 산신군줄도 케우리곡 오설룡띠님 아기 언설, 단설, 녹미녹설, 설례산적 받아오던 조상 이제 저 올레로 케우리곡 산신놀이 헤영, 산신군줄덜 제사호곡, 이제 영 허곡, 철갈이 혈 때엔 옛날에는 쉐막이 잊어낫거든. 옛 이제는 목장에 낫지만은 쉐막이 잊이난 쉐막에 허면은 철갈이 혈 때에 이 쉐막 메밧디 가그네 이 겔랄호곡 뭐 행 강 떡이영 강 묻는 디가 잊곡 두 밧디 강 묻는 디가 잊곡, 그냥 케우려그네. 이제 감주영 술이영 케우령 그디 상다 케우령 경 행 가난 그 집이 간 펜안행 부제팔명행 살아가난 이 조상 삼년에 오년에 훈 번 조상간장 풀령 조상간장 풀리네 영 허난네. 그 북 터지게 궂헤여그네.

- 핵심어 : 오설룡띠님아기, 소, 말, 간, 철갈이, 구좌읍 하도리